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 '책 읽는 여인'

책, 이런 보물 또 없습니다

독서인간

차이자위안 지음

“배 고프를 때는 책을 읽으며 고기로 삼고, 추울 때는 책을 읽으며 가죽옷으로 삼고, 쓸쓸할 때는 책을 읽으며 친구로 삼고, 울분이 쌓였을 때는 책을 읽으며 약기로 삼는다.” 남송 시대 우무(1127~1202)가 남긴 말이다.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어떤 땐 ‘책 그 자체’에 매혹을 느낄 때도 많다.

‘책은 영혼을 가진 사물’이라 생각하는 차이자위안이 펴낸 ‘독서 인간-책과 독서에 관한 25가지 이야기’는 한번 손에 잡으면 놓기 힘든 흥미로운 책이다. 누구나 한번쯤 생각했을 책에 대한 이야기와 궁금증부터 난생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이야기까지



책에 대한 숏한 읽을거리가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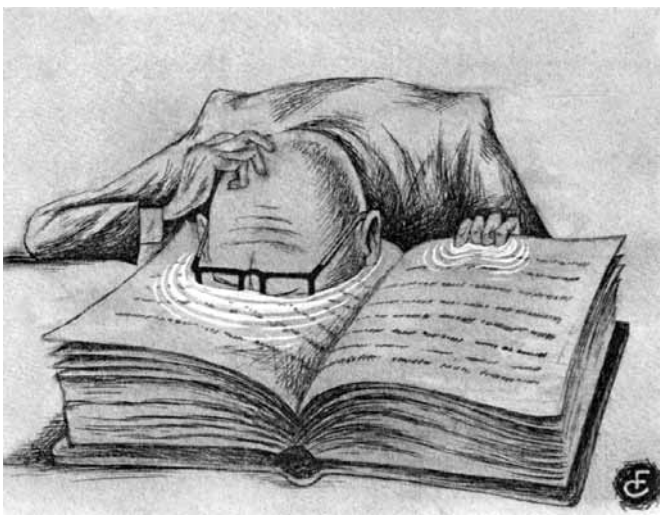
중국 작가이자 평론가로 활동중인 저자는 ‘살아있는 색깔과 향기’, ‘도서관에 데이트하러 간다’ 등 서향(書香) 3부작을 통해 ‘책’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다.

1부 ‘책의 향기’는 책의 냄새, 피지, 책갈피, 장서인, 장서표 등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람 가족으로 만드는 인피서, 먹을 수 있는 책, 거울로 만든 책 등 다양한 책의 형태는 사진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다. 또 접착용 풀, 종이 등에 포함된 성분과 섬유를 좋아하는 책벌레에 대한 이야기와 책벌레처럼 평생을 책속에 파묻혀 살았던

이들의 삶도 눈길을 끈다.

2부 ‘책의 거처’는 ‘누군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서가를 비롯해 서재, 도서관, 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3부 ‘책과의 인연’에서는 책에 미쳐 있는 ‘서지’, 서적상을 비롯해 독서, 책 빌리기, 책도둑, 금서에 대해 풀어놓는다.

4부 ‘책을 둘러싼 풍경’은 ‘유부 각매일’, ‘한나와 그 자매들’, ‘필로우 북’ 등 영화를 비롯해 책을 사랑했고, 책과 함께 있던 여인들의 모습, 커피·치료·광고와 일한 책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의 최대 강점은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다양한 사례와 컬러로 개재된 풍부한 사진 자료다. 무엇보다 필자가 중국인인 덕에 기존의 책들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중국 책문화



카자흐스탄 화가 보란바예프의 카툰

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만날 수 있다. 저자가 한국어 판 서문에 적은 마지막 문장은 “모든 책을 소중한 보물로 생각하라!”다. 읽다보면 정말 책은 보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알마·1만9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과학은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해” 융합의 시선으로 본 과학의 본질

과학, 인문으로 탐구하다

박민아·선유정·정원 지음

매년 10월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면 우리는 귀를 종긋 세우고 한다. 과연 한국인 과학자는 언제쯤 노벨상을 탈 수 있을지, 과거에 비하면 수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 심리 때문이다.

노벨과학상은 사실 논문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므로 과학자는 글을 잘 써야 한다. 글쓰기를 비롯해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춰야 한다. 실험실에 틀어박혀 이뤄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연구 결과를 동료 과학자들에게 이해시켜 그 진가를 인정받아야 한다. 과학에 인문학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인문학과 과학의 만남을 다룬 ‘과학, 인문으로 탐구하다’가 출간됐다. 인문학과 경제학·건축·수학·의학의 만남에 이은 ‘융합과 통섭의 지식 콘서트’ 다섯번째 시리즈로, 대학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세명의 저자가 함께 펴냈다.

과학은 딱딱하고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이는 편견이자 오해다. 과학의 본모습은 훨씬



다채롭다. 원인으로 부터 결과를 예상하는데 필요한 무한한 상상력,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공감 같은 요소도 포함한다.

책은 과학이 본래 융합적인 학문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고대 플라톤과 ‘산해경’에서 설록 흡즈와 자연사 박물관을 거쳐 최신 영화 ‘인터스텔라’에 이르기까지 과학이 철학과 예술,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었던 오랜 역사를 흥미롭게 복원하고 있다.

세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한 만큼 과학과 관련한 매우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역사 속의 과학과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의미와 관련 내용은 박민아 교수가, 과학의 역사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정원 교수,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과학, 첨단과학기술, 최근 문화콘텐츠에 접목된 과학 이야기는 선유정 교수가 맡았다.

〈한국문화사·1만45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내 서재 속 고전=에세이스트 서경식이 자신의 서재 속 책을 가운데 마음에 품고 있던 열여덟 권의 고전을 꺼내놓았다. 자신의 독서 이력과 사유를 한껏 드러낸 글들을 통해 어떤 순간 그 책을 만났으며 어느 구절에 밑줄을 치며 성찰했고 또 어떤 깨달음과 위안을 얻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 저자가 말하는 고전이란 인간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비관적 현실을 냉철하게 응시하고 실패에도 쉽게 무릎 꿇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 존재로 우리를 견디게 해주는 무언가이다.

〈나무연필·1만4000원〉

▲자연이 보내는 손익 계산서=자연의 가치를 구체적인 화폐 가치로 환산해내는 책. 생태주의자이자 환경운동가인 토니 주니퍼는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지,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자연에 기대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일깨워준다. 환



경 문제에 대한 틀에 박힌 해석에 식상한 사람들이나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생태적 인식을 일깨워 줄 것이다. 〈갈라파고스·1만6500원〉

▲삼국지의 여인들=영어판, 일어판, 불어판, 중국어판 등 전세계의 삼국지를 속독한 노(老)교수가 기존의 금기를 깨뜨리며 써내려간 ‘삼국지의 영웅과 여자들’ 이야기. 냉혹한 전장 속 여인들의 교묘한 술책과 피를 말리는 생존본능, 그리고도 남자를 정상에 등극시킨 그녀들의 비책은 무엇일까. 지략인가, 내조인가, 협업인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저자 민희식이 그녀들의 마력과 대담성에 대해 과감하게 파헤



친다. 〈문학의 문학·1만4500원〉

▲위험한 역사 시간=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역사 공부 열풍이 거센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는 얼마나 우리 역사를 충실하게 서술하고 있을까?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국·검정 역사 교과서를 일일이 비교 분석한 지은이는 고대사에 중점을 두고 역사의 시간과 공간으로 나눠 현행 국정 역사 교과서를 최초로 낱낱이 해부한다. 교과서의 지은이들이 쓴 역사서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 그들의 사관까지 폭넓게 비판한다. 〈인문서원·1만8000원〉

▲작기교육=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는



최고의 양육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2000년도 초반부터 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선행 교육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조기교육의 현황과 특징을 비롯해 조기교육이 아이의 정서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부모들의 양육 불안과 관련해 놀랄만한 사실들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교육의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적기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준다.

〈글담출판·1만3800원〉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벤쿠버의 내과 전문의인 저자 게이비 메이트는 어린시절부터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고통을 참아내며 부모의 고통을 배려하는 것을 자신의 성격으로 삼았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자기희생적 대처 방식을 성인이 되어서도 바꾸지 않으면 몸이 이를 거부하며 스스로를 공격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본래의 지혜를 찾아 가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여행을 제안하고 있다. 〈김영사·1만8000원〉

어린이 책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음악 수업 100=우리나라 최초의 클래식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음악감독이자 실제 모델, 서희대 지휘자가 들려주는 클래식 음악 이야기. 어린이들이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클래식 음악가와 오케스트라에 대한 100가지 이야기를 5가지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한다. 〈이케이북·1만5000원〉



▲마음씨네 탈무드 학교 1교시 배려=유대인의 탈무드 교육 핵심을 담은 책. 탈무드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문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워 주며 바른 인성을

가칠 수 있도록 했다. 유대인이 탈무드를 읽고 질문하고 이야기하며 토론하는 방식을 그대로 구현해 탈무드가 주는 진정한 교육적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했다. 〈꿈꾸는 초승달·1만원〉

▲가려 뽑은 야담=조선시대 평민들의 귀를 즐겁게 했던 수많은 야담 중에서 지금도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선별했다. 책에서는 여섯 권의 야담집 ‘청구야담’, ‘어우야담’, ‘잡기교담’, ‘천예록’, ‘죽장한화’, ‘차산필담’에서 야담 14편을 뽑았다. 어린

이와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 한국어로 풀어 써,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협암사·1만3000원〉

▲공룡 탐험대 놀이북, 학습북-티라노사우루스 편=공룡과 함께 교감하고 놀면서 공룡에 대해 배우는 책. 놀이북과 학습북으로 나뉘어져 있다. 공룡을 직접 발굴하고, 발굴한 뼈를 조립해 보고, 퇴색아난 공룡에게 먹이를 주면서 키울 수 있다. 공룡들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흥미진진하게 체험할 수 있다. 〈자연사연구소·각 권 1만5000원〉

201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30	19
	국제한국어교원학과	5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7	3
사범	유아교육과	17	3
예능	음 악 학 과	10	5
	실용음악학과	15	5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5. 9. 9(수) ~ 15(화) • 전형일 : 2015. 10. 2(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5. 12. 24(목) ~ 30(수) • 전형일 : 2016. 1. 5(화)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2015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17기)	광주교육대학교(127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5. 9. 4(금) 09:10 (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5. 9. 4(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5. 9. 5(토) 09:10 (초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5. 9. 7(월) 14:10 (중급반) ·월. 목. 09:20반 '2015. 9. 7(월) 19:00 (특급반) ·목요일 오후반 '2015. 9. 10(목) 14: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5. 9. 12(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5. 8. 3.(월)~9. 5.(토)	2015. 8. 3.(월)~9. 12.(토)
수업기간	2015. 9. 4.(금)~2016. 2.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5. 9. 7.(월)~2016. 2.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09:20 18: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원문책임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교장과 후 교육장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대학기회 부여)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원문책임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교장과 후 교육장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대학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명):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620-4243 ·지도교수(선병명):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